

학부모 교육 자료

| | |
|-------------------------------------|----|
| 1. 학교폭력예방교육 | 1 |
| 2. 아동학대예방교육 | 3 |
| 3. 가정폭력예방교육 | 4 |
|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5 |
| 5. 인권교육 | 6 |
| 6. 성폭력예방교육 | 7 |
| 7. 흡연예방교육 | 9 |
| 8. 양성평등교육 | 12 |
| 9. 정보통신윤리교육 | 14 |
| 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부당요구 금지교육 | 16 |
| 11. 청렴교육 | 18 |
| 12. 교권보호교육 | 21 |
| 13. 공교육정상화법교육 | 22 |
| 14. 장애공감교육 | 24 |



이리석암초등학교



1 학교폭력예방 교육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이해

◎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뱉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일까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진회' 등 청소년 폭력씨클에 의한 집단폭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학교 일진회와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 피해학생의 징후 | 가해학생의 징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친구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이유없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갑자기 돈 씹씀이가 커졌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4.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커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자녀와 많은 대화를, 선생님과는 정보 공유를’

1. 내 자녀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2. 수시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발달 상황과 교우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3.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시킵니다.
4. 평소 다른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투를 쓰는 자녀, 잘난 체 하는 행동의 자녀, 유별난 복장을 하는 자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주세요.
5. 자녀와 대화,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수시 관심 및 조언을 하고, 핸드폰 문자, 미니 홈페이지 등을 관심을 가지고 살핍니다.
6.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위협을 느끼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른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가 최우선입니다.



2 아동학대예방 교육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제 7호>

2. 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적 손상,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학교 부적응, 정신병리, 애착형성의 붕괴,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자학적, 자기 파괴행동 등

3. 아동학대 신고요령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26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129 /112)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학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577-1391, 129)
-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 실시
- 특히,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한 사건접수시 12시간 이내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사례판정

- 학대의심사건에 대해 아동, 행위자, 기타 관련인 면접조사 실시
-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경우 긴급격리보호 실시
-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 및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조치결정

- 피해아동: 가정내보호, 격리보호, 타기관이뢰
* 격리보호시 학대아동전담그룹홈 또는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 학대행위자: 상담및교육, 고소고발, 타기관이뢰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고소고발지원 등
-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 등
- 기타가족: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가사지원) 등



3 가정폭력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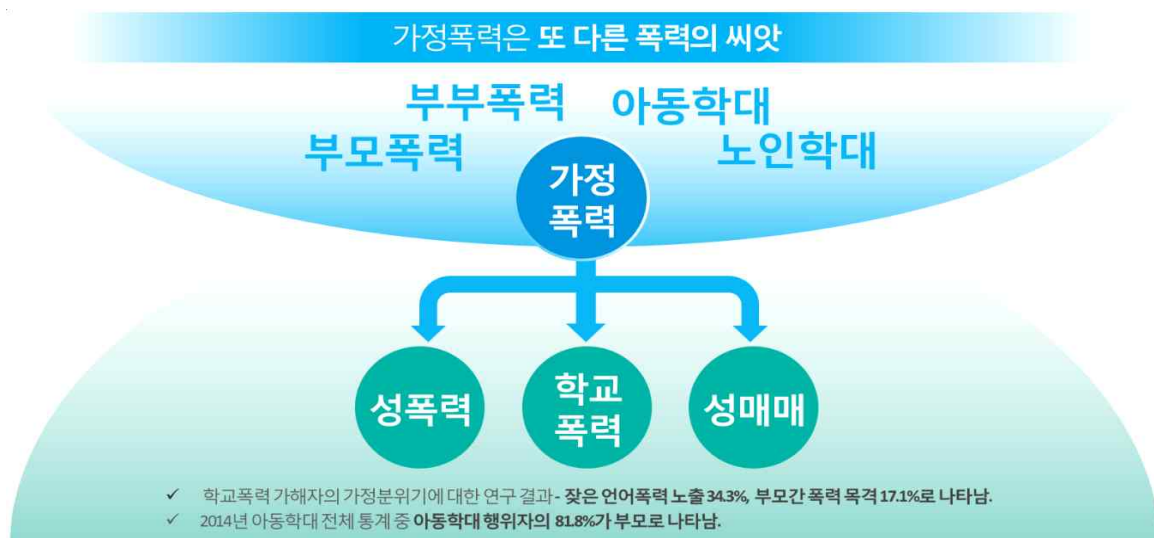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2.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의 근본 원인



3.

가정폭력 신고기관 및 지원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위기 개입 상담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 7일 이내 긴급보호
- 지역 관련 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 자립지원: 취업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동반자녀 지원서비스 (학업, 심리치유, 취학 및 비밀전화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9:00~18:00)
-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정기관)
-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지정기관)
- 가정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 지역 관련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기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다누리 콜센터(1577-1366)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1.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과 대처

알아차리기 - 위험신호

1.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2.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3.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수면 상태의 변화

가정에서 대처방법



- ▶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 ▶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 ▶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
- ▶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 파악
- ▶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줌
- ▶ 자녀 칭찬 10계명
 -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5 인권교육

1. 인권과 인권교육

▶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가족의 인권 지수는?

☞ 어린이가 체크(✓) 해 봅시다.

| 내 용 (학생용) | 체 크 | | 비 고 |
|--------------------------------|-----|---|--|
| | ○ | × |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 |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 해요 |
|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 | | |
|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 | | |
|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 | | |
|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 | | |
|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 | | |
|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 | | |
|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 | | |
|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 | | |
|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 | |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 내 용(학부모용) | 체 크 | | 비 고 |
|-----------------------------------|-----|---|--|
| | ○ | × |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 |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 해요 |
|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 | | |
|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 | | |
|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 | | |
|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 | | |
|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 | | |
|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 |
|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 | | |
|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 | | |



6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을 금기시하는 우리 문화상 자녀와 성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은 TV와 인터넷, 또래로부터 성과 관련된 이야기, 이미지 혹은 영상 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부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자기보호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녀는 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 1)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2)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4)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5)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6)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7)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8)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9)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10)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자녀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 1)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보면 밝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불신이나 두려움을 갖거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 2) 자녀들이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부터 평소에 자녀들의 몸을 소중히 다뤄야하며, 소중함을 자주 말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몸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 3) 부모님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성폭력 예방의 기본이 됩니다.

4.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알릴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가. 부모 대응 절차(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 1)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 2)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이나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 3)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8시간 이내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 방문)
- 4) 학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한다.
- 5)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나. 부모의 유의 사항

- 1)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 2)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 준다.
- 3)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킨다.
- 4)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
- 5)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기관을 통한 의료 및 상담 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6) 자녀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않는다.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7) 피해 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 8)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ONE-STOP 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9) 가해자의 협박, 합의 종용 등 증거 자료를 수집, 녹취한다.



7 흡연예방 교육

1. 담배의 해로움

가. 담배의 위해

흡연자의 절반은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대표적인 질병은 악성 종양(암), 심 뇌혈관계 질환, 폐 질환이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10년 정도 조기 사망한다 .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이 중 60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만 8,000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담배의 유해물질

담배연기는 5,000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독성 및 발암물질의 혼합물로, 69가지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Tobacco Atlas, 2012) 대표적인 유해물질로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있으며, 이 중 니코틴이 담배 의존성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이다. 타르는 단일 성분이 아닌, 고체 성분을 태울 때 만들어지는 물질로 흔히 담뱃진이라고 불린다. 담배의 연소 과정에서 다량의 발암 물질이 발생되게 된다.

나프탈렌(종약) 디디티(살충제) 폴로늄210(방사선) 우레탄(산업용 용제) 니코틴(중독성 물질)
 부탄(라이터의 원료) 아세톤 (페인트 제거제) 포름알데히드 (매운맛,취루탄 사용) 타르(담뱃진)
 암모니아(호흡기 자극)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 주원인) 청산가스(사형 가스) 메탄올(로켓 원료)
 나프티라민(방부제) 벤젠(휘발유 성분) 비닐 크롤라이드(PVC 원료) 니켈(중금속, 배터리, 도료)
 크로미움(중금속, 도료, 합금) 카드미움(자동차 배터리 사용) 벤조피렌 (강력한 발암물질)
 비소(사약의 성분) 디메칠니트로사민(발암물질) 페놀(발암물질, 석탄산, 소독제)

니코틴은 담배에 들어 있는 성분으로서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물질이다. 흡입하면 구강, 폐, 위장관 등을 통하여 혈액으로 흡수되며, 10~20초 이내에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에 도착 하게 된다. 몸속으로 들어온 니코틴은 급격히 혈중농도가 감소하여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절반이 된다. 이때 흡연자는 금단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니코틴 의존은 결국 내성과 금단의 결과에 따른 흡연 행동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의 결과이다. 니코틴 금단 증상은 짜증, 집중력 저하, 안절부절못함, 불안 등인데, 담배를 만성적으로 피우면 내성과 금단이 생기고, 이 증상은 니코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몇 시간이면 다시 흡연자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흡연자는 금단 증상을 느끼면 이를 없애려고 다시 흡연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밤새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아침에는 내성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첫 담배에서는 즐거움이나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 기분 고양 등이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흡연자들이 아침 첫 담배를 가장 좋아하며 끊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면 내성이 바로 일어나고, 수 시간 내에 긍정적 보상을 기대하는 양성 강화보다는 금단을 피하기 위한 음성강화만 남게 되며, 흡연자는 사실 별다른 감흥 없이 하루 종일 흡연만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같은 흡연자라고 해도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니코틴 의존도는 몇 가지 평가 도구로 알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등 6개 문항을 물어보는 <퍼거스트롬 니코틴 의존도 평가도구>가 있다.

| 질문 | 대답 | 점수 |
|---|-----------|----|
| 1.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 5분 이내 | 3 |
| | 6~30분 사이 | 2 |
| | 31~60분 사이 | 1 |
| | 60분 이후 | 0 |
| 2. 지하철, 버스, 병원, 영화관 등과 같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요구를 참는 것이 어렵습니까? | 예 | 1 |
| | 아니오 | 0 |
| 3. 가장 포기하기 싫은 담배, 다시 말해 가장 좋아하는 담배는 어떤 것입니까? | 아침 첫 담배 | 1 |
| | 그 외의 담배 | 0 |
| 4.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 10개비 이하 | 0 |
| | 11~20개비 | 1 |
| | 21~30개비 | 2 |
| | 31개비 이상 | 3 |
| 5. 깨어나서 처음 몇 시간 피우는 흡연 양이 하루의 다른 때보다 더 많습니까? | 예 | 1 |
| | 아니오 | 0 |
| 6. 아파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감기나 독감에 걸려 호흡이 곤란할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예 | 1 |
| | 아니오 | 0 |

※니코틴 의존도 결과의 해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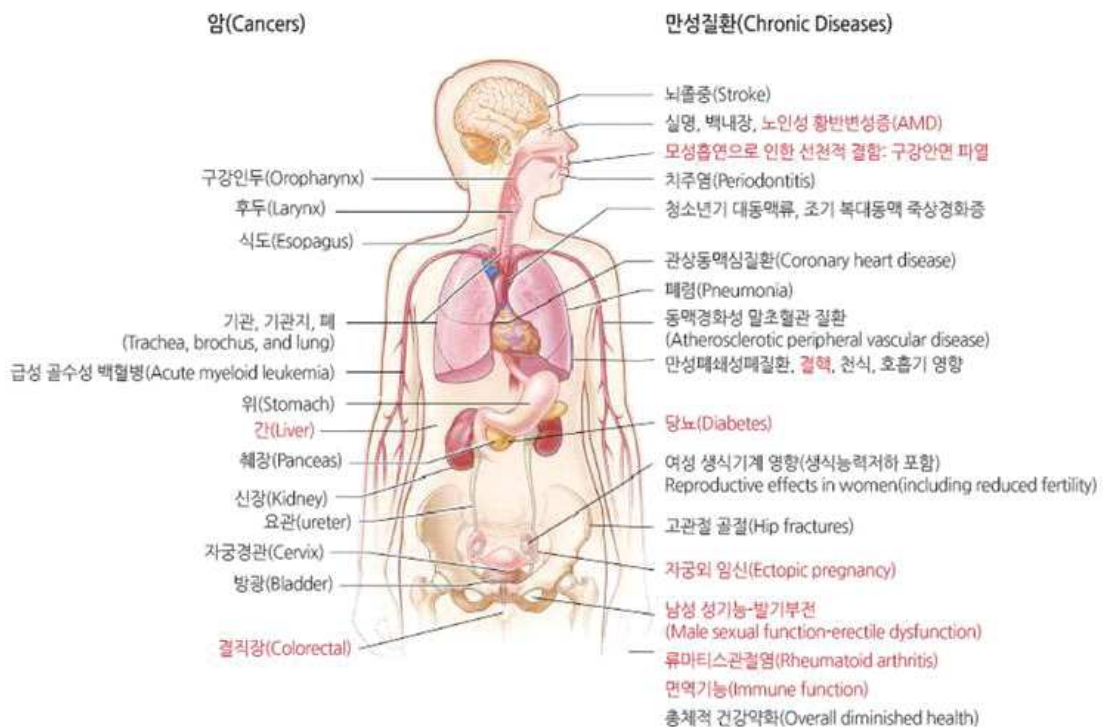
0~3점 : 의존도 낮은 상태

4~6점 : 의존도 중간 상태

7~10점 : 의존도 높은 상태로서 금단 증상이 더 심하고, 금연하기 더 어렵고, 니코틴 대체 요법으로 치료할 때 더 고용량의 니코틴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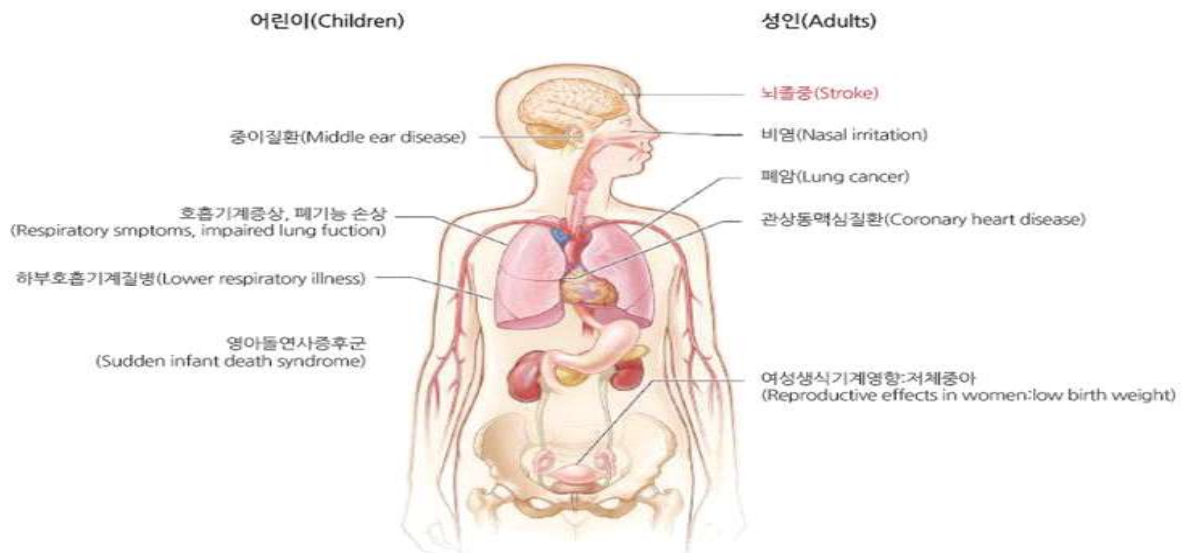
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호흡기계 암과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처럼 잘 알려진 암 외에도 2014년 미국 보건 총감 보고서는 간암과 대장암을 추가하였다. 또한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고관절 골절처럼 기존에 알려진 만성 질환 외에, 노인성 황반변성, 당뇨병, 발기부전 등을 직접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추가하였다.



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간접흡연으로 인해 어린이에서는 중이염, 폐기능 이상,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발생하고, 성인에게 서도 폐암, 심근경색, 저체중아 출산 등이 일어나게 된다. 2014년 미국 보건 총감 보고서는 뇌졸중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2. 금연의 건강 이득

35세 이전에 금연하면 흡연으로 인한 수명 단축을 거의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연 연령이 늦어질 수록 금연의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가령 40세에 금연하면 9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지만, 50세에는 6년, 60세에는 3년 정도로 수명 연장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금연 후 신체 변화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금연 후 1년 후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들 게 되고,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계 보건기구, 2014)

| 금연 20분 이내 | 금연 1년 후 |
|---|---|
|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 |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 |
| 금연 12시간 후 | 금연 5년 후 |
|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화 | 뇌졸중의 위험은 금연 5-15년 후에 비흡연자의 수준으로 감소 |
| 금연 2주일-3개월 후 | 금연 10년 후 |
| 혈액순환 및 폐기능 개선 |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함 구강, 후두, 식도, 방광, 자궁경부, 췌장암의 위험이 감소 |
| 금연 1-9개월 후 | 금연 15년 후 |
| 기침과 호흡곤란이 줄어들음 섬모가 정상 기능을 회복하고 가래 배출 능력이 호전 감염 위험이 감소 |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짐 |



8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이란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남녀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한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하며,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 **성차이** :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생식기를 가지며 성장하면서 신체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는 것

【예】 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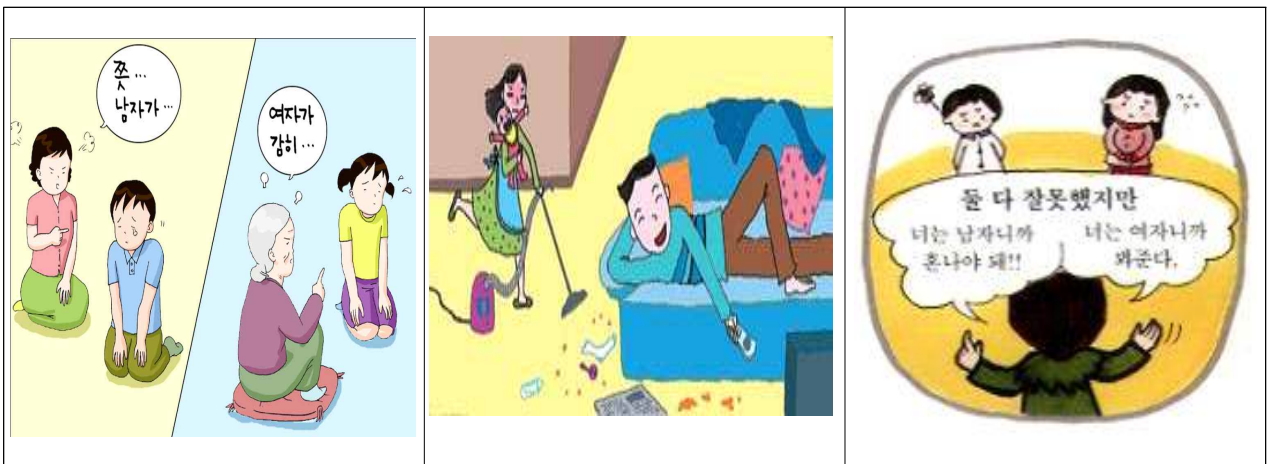
②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고, 자라면서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 **성차별** : 생각이나 행동에서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지 않게 대우하거나 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예】 ① 남자는 씹씹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② 남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③ 남자는 여자들보다 강해야하기 때문에 슬퍼도 울면 안 된다.



❁ **성고정관념** : 남자와 여자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 남자는 중요하고 씹씹하고 용기 있고 활기찬 일을 하고, 여자는 양전하고 정숙하고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

<참고자료 : www.mogef.go.k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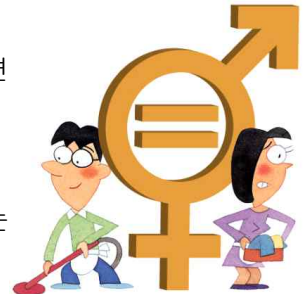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예

- ①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좋고, 여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결혼을 잘하는데 있다
- ②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 ③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 ④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가 우선 남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⑤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보다 철저한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 ⑥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 ⑦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 ⑧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 ⑨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눈물을 보이는 남자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남자이다.

2.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실천

- ①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②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 가르쳐야 합니다.
- ③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 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합니다.
- ④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⑤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평등가족 5계명

1. 항상 좋은 일로 대화하도록 노력하고, 민주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2. 집안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분담하고 책임지며 휴식도 함께 취합니다.
3. 가족 모두 약속을 지키는 생활을 합니다.
4. 가족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5.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구촌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참고자료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9 정보통신윤리교육

가.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 컴퓨터 사용시간 가족들과 협의결정
-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 알람시계로 사용시간 수시확인
- 운동이나 취미활동시간을 늘리기 -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기
-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 스마트폰 중독이란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

■ 스마트폰 중독 예방!!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라.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 (언어)폭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 최신 유형 | 설명 |
|-----------|---|
| 카카오톡 왕따 |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
| 와이파이 셔틀 |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
| 게임 아이템 셔틀 |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 사이버 언어폭력 대처방안 >

1.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2.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3.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4.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에 관심을 가진다.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6.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8.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그 전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 소프트웨어교육

- **소프트웨어교육** :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이해하여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사고력 중심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 ◆ **컴퓨팅 사고력**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
- ◆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지식·학습 공동체에서 공유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협업을 통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 **정보 문화 소양** 정보 사회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시민 의식을 갖추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소프트웨어교육, 이런 활동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교육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놀이중심활동(언플러그드): 컴퓨터 없이 활동이나 게임 등을 통해 컴퓨터과학의 원리를 학습하거나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2)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블록 형태의 명령어를 조립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합니다.
- 3) 교구 활용(피지컬 컴퓨팅): 다양한 로봇, 센서 등의 교구를 이용하여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합니다.

바. 저작권교육

- **저작권법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연구 및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글, 그림,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저작물에 대해서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표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하며 이를 지켜주는 법을 저작권법이라 일컫습니다.

-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하는 이유?**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이럴 때 저작권 침해**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에 올리기
-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 영화 · 음악 파일을 게시판 자료에 올리기
- 멋진 음악을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서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서 내기
-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부담요구

1.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 가.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 나.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다.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라. 나항의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 가.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아동 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전출 시 교육정보보호시스템에서 비밀처리를 하여 학부모서비스신청내역을 전송하지 않음.
- 나.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 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3. 상급학교로의 자료 제공

- 가.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 나. 상급학교에서 하급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영역인 '진로희망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의 진로활동 영역에 한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다.
다.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전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요구 불가

- 가.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정정 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

5.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순 | 봉사장소 | 인정 | 비인정 |
|---|--------|--|------------------------------|
| 1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 사립 어린이집 |
| 2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인정 | 개인 노인요양병원 |
| 3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 개인 노인요양원 |
| 4 | 병원 | 법인이 운영 중이며 병원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이 관리하는 병원 | 개인병원 |

- 가. 봉사인정 가능 기관 확인 후 시간 인정(유선으로 확인)
나.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다. 학생이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교사에게 확인 후 실시하도록 안내
라.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결정



11 형령교육 (형령교육, 반부패교육)

I.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주요골자

-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한다는 것!

1 청탁금지법 추진경과

- 국회 본회의 의결 : 2015. 3. 3.
- 법안 공포 : 2015. 3. 27.
- 청탁금지법 시행 : 2016. 9. 28.

2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
- 선의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

3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4 부정청탁 행위유형(15가지)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질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5 부정청탁의 금지

- 이해당사자(A)가 제3자(B)를 통하여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 이해당사자(A)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 제3자(B) : 과태료(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 ☞ 공직자(C) :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해당사자(A)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 이해당사자(A) : 처벌대상에서 제외
 - ☞ 공직자(C) :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6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 ☞ 공직자 등과 배우자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100만원 이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수수금액의 2~5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청렴의무 위반등 관련사항 신고

◇ 부패신고 문의처

- 이리석암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교감 최규하 ☎ 063-834-1297



12 교권보호 교육

1. 교권침해의 포괄적 정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

가.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 관리자의 지도·감독권 남용
-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나.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 부당한 신분·인사 상 조치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2. 법률적 정의

가. 「교원지위법」 제15조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나.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13 공교육정상화법 교육

1.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가.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 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4.3.11. 제정되고 2014.9.13. 시행되었습니다.
- 나. 학교가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학교교육 과정에 앞서서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선행교육이라고 합니다.
- 다. 학습자가 국가, 시·도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 라. 학교가 각종 교내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을 선행출제라고 합니다.
- 마.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규제 대상

| 목적 | 규제대상 | 규제대상 예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 교육 기본법이 정한 교육 목적 달성 ▶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교육 ▶ 선행학습 유발 행위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휴업일 중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후 과정 |

바. 책무성

| 학교장 | 교사 | 학부모 |
|---|---|--|
| <p>◆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함.</p> | <p>◆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p> | <p>◆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다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함.</p>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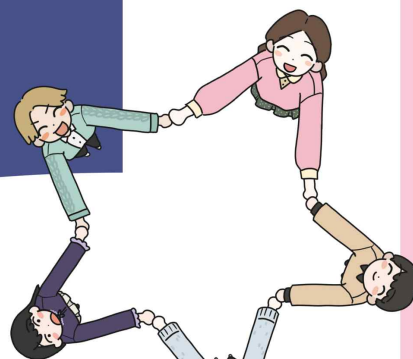
▶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14 장애 공감 교육

장애공감교육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



01. 통합교육이란?

학교는 작은 예비 사회입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 학생은 또래와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하고, 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02. 특수교육 관련 용어가 궁금해요!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있어도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라도 특수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받아야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맞는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 설치한 학급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차별받지 않으며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자, 배움의 기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03. 우리는 모두 달라요.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1. 다음 원피스 사진이 어떤 색으로 보입니까?



- ① 흰색과 금색 ☐ ☐
 ② 파랑색과 검정색 ☐ ☐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똑같은 색으로 보았나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흰색과 금색으로 보여요!



분명히 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위의 QR코드를 찍어 영상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QR코드를 찍어 영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보호자님께서는 어떻게 들립니까?



- ① 야니, 예니(YANNY)
 ② 로렐(LAUREL)

미국인의 47%는 Yanny, 53%는 Laurel로 듣는다고 합니다. PC, 휴대폰, 헤드폰, 이어폰 등 디바이스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고주파 영역인 예니를 나이가 많을수록 저주파 영역인 로렐이 들립니다. 실제 음파의 모양은 예니보다 로렐에 가깝다고 합니다. 같은 것인데 다르게 들려요.

3. 나는 롤러코스터, 바이킹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 ① 무섭다.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② 신나고 즐겁다. 스트레스 풀려 ~~
 ③ 아무 생각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신나는 놀이기구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섭지만 막상 타면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조금 무섭기도, 더 무섭기도, 같은 것인데 모두 다르게 느낍니다.

공장에서 과자 먹는 소리? 영화관에서 과자 먹는 소리?



비장애인과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입장은 어떻게요?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성격, 외모, 취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장애는 그렇지 않을까요?

화사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 어두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사람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또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양성에는 인종, 키, 성별, 나이, 취미, 특징, 취향처럼 장애도 포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장애공감교육

04.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8. 4. 11 시행)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차별 진정 접수 국번 없이 1331(국가인권위원회)



우리는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05.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Q. 장애가 있거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해요.

둘째, 장애인이나 특수학급(도움반, 개별학습반 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요**.

셋째, 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받아 걷는다고 해서 **뚱어지게 쳐다보지 않아요**.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넷째,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면** 생각 중이거나 해야 할 일이 있어 바쁜 것이니 **잠시 뒤 다시 물어봐요**.

다섯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줘요**.

06. 장애 어린이가 하고 싶은 말,

“네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너는 왜 저걸 하지 못할까?” 제발 이런 생각들은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어른들의 기대에 그대로 따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의 변호인이자,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 자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